광명사, 창립 53주년·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법회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일상수행 위한 천태지관다법 첫 선 시민들과 함께하는 들차회 및 공연 쌀 10kg 100포 성금 300만 원 전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천태종 부산 광명사(주지 춘광)가 10월 9일 3층 지관전에서 '창립 53주년 및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법회'를 개최했다.

광명사는 이번 창립 기념법회를 통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고 부산의 발전과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법회를 열었다.

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부산불교연합회장 보운 스님,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박형준 부산시장, 하윤수 부산교육감, 백종헌 국회의원, 김제윤 금정구청장, 이재동 광명사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법회는 △삼귀의례 △찬불가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국운융창기원 △이웃 나눔 △연혁보고 △봉행사 △법문 △축사 △기원문 낭독 △관음정진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광명사는 먼저 헌다 의식을 통해 창립을 기념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기원했다. 헌다의식에는 부산 광명사·삼광사, 울산 정광사, 김해 해성사, 진해 해장사, 창원 원흥사, 진주 월경사 등 천태종 사찰 소속 다도회가 장엄한 헌다의식을 연출했다. 아울러 중국 천태종 개창조인 천태 지의대사와 한국 천태종을 개립한 대각국사 의천 스님께 차를 올리는 천태지관다법을 선보였다. 천태지관다법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처음 소개하는 다법으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차를 통해 지관 수행을 가능하게 돕는다. 천태지관다법에서 앞차행다법은 고려의 대차를 우려내는 다법으로 '천태소지관'의 지관수행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말차행다법은 고려의 뇌원차점다법과 〈법화경〉의 제약법을 수용한 다법이며 지자대사의 '마하지관'의 지관수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광명사는 법회와 헌다의식 외에도 들차회와 광명문화예술제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회향했다. 들차회에는 천태종 소속 사찰 다도회와 부산여대(배귀점 교수), 이초신 금낭화 팀이 동참했으며 광명문화예술제에는 광명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을 비롯해 박현진 소프라노, 김화정 테너, 판소리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가 10월 9일 3층 지관전에서 '창립 53주년 및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법회'를 개최했다.

무원 스님은 법문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중심을 잡고 부처님 가르침을 법식으로 삼아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 한다"며 "창립 53주년을 맞은 광명사에서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힘들 때면 찾아와 수행하며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지 춘광 스님은 "앞으로 광명사 사부대중은 부산시민과 함께 자비와 지혜, 사랑으로 소통하고 불안과 근심 걱정을 해소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포교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 명상힐링센터 운영과 생활차문화대학, 법화산림법회 등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정신안정과 행복을 위해 시대적 책임을 다하는 광명사가 될 것"이라 말했다.

춘광 스님은 법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해주길 당부하며 쌀 10kg 100포를 금정구청에 전달하고, 성금 300만 원을 부산광명복지회에 전달했다.

광명사는 1969년 10월 15일 부산시 동구 좌천동 김정숙 불자의 집에서 부산신도회 창립법회를 개최하며 시작됐다. 1973년 12월 5일 부산시 장전동 구 관음사 법당을 매입한 후 상월원각대조사가 '광명사'로 명명해 부산 천태신앙의 번영과 토대를 마련했다. 1981년 3월 30일 광명사 초대 주지로 주정산 스님이 임명되었으며, 1982년 6월 4일 광명사 관음불상 봉안식, 2008년 6월 6일 지관전 대법당 기공식, 2009년 8월 15일 법당 상량식, 2016년 12월 12일 일주문 낙성식, 2022년 6월 5일 미륵대범종각 기공식을 봉행했다.

창원불교聯, 제32회 산해원문화상 후보자 공모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회장 정인)가 제32회 향기로운 산해원(山海原)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산해원문화상의 분야는 문학상, 예술상, 언론상, 한마음행원상이다. 후보자격은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전문 활동경력을 가진 자로 선정하며, 지역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남 지역인을 선정한다. 후보자의 종교와는 무관하게 추천 가능하다.

가 부문 수상자에게는 창작지원금 700만 원 및 상패가 주어지며 시상식은 12월 5일 창원 그랜드 머큐어 엠배서드 창원(구,풀만호텔)에서 개최된다.

접수 마감은 10월 31일까지이며 추천권자는 기관단체장, 문화예술, 언론, 봉사단체 대표 등 이다. 010-3875-5593. 성낙두 경남지사장

홍법사, 개산 19주년·창건주 탄생 100주년 기려

허공마지 선차대회 등 다양한 행사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가 10월 8일 경내 잔디마당에서 '제3회 허공마지 선차문화 대회 및 제5회 홍법 사찰음식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개산 19주년과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사찰음식 명장 대안스님과 함께하는 한국전통사찰음식 만찬회, 2부 전국 30여 다회의 선차 시음들차회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지 심산 스님과 석태암 주지 만초 스님, 청송사 주지 묘경 스님, 양재생 홍법사 신도회장,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 이병진 부산행정부시장, 백종헌 국회의원,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도경창 주부산중국총영사 직무대행, 칙터 우너르자야 주부산몽골총영사 등 108인의 내빈이 참석했다.

사찰음식으로 마련된 만찬에서 내빈들의 축사와 주지 심산 스님의 인사말이 이어졌으며 공양 후 잔디마당에 마련된 3000개의 평안등에 불을 밝혔다. 또 잔디마당에서는 30개의 다도팀이 참여해 찻자리를 마련하고 다법 및 선차를 직접 시음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주지 심산 스님은 "차와 음식은 우리의 일상이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서 벗어나 불교의 일상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이다. 일상은 문화이며 문화는 우리의 정신이 된다"며 "화려한 먹거리에서 벗어나 소박하고 자연과 생명과 공생하는 불교문화를 함께 맛보며 우리의 삶이 더욱 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홍법사는 널리 법을 펼친다는 뜻으로 홍법(弘法)이란 이름을 걸고 2003년 9월 농장 비닐하우스농막에 부처님을 모시고 불사를 시작했다. 2009년 4월 전통과 현대적인 건축문화가 잘 어우러진 원형 법당을 조성하고 낙성식을 봉행했으며, 원형법당은 전통불교 건축형식의 틀을 깨고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복지화, 세계화'를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다. 홍법사의 상징이 된 높이 21m의 아미타 대불은 2010년에 조성됐다. 건물의 높이까지 더하면 45m로, 국내 최대의 좌불이다. 특히 점안식을 앞두고 홍법사의 원대한 포교 원력을 전해들은 달라이라마 존자가 부처님 진신사리를 전해왔다. 현재 법당에서는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 일만배 기도, 1080배 기도, 사경, 독경 등 수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독성각에는 창건주 하도명화의 원불(願佛)인 나반존자를 안치해 창건주의 기도 및 수행정신을 기리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천불정사, 행정고시 합격자 축하행사

5급 합격자 장명훈 참석해 감사인사

인재불사도량 부산 천불정사(회주 고담)가 10월 7일 경내 법당에서 '천불정사 인재불사 5급 행정고시 합격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천불정사에서 후원한 신목정과 고담정에서 공부하고 2022년 5급(행정) 공채에 최종 합격한 장명훈 학생(부산대학교 심리학과 12학번)이



참석해 고담 스님께 감사 인사를 올렸다. 이번 해 5급(행정) 공채에 최종 합격한 합격자는 장명훈 학생과 김태훈 학생(건축공학과 15학번) 등이 있다.

강재호 행정학과 교수는 "매년 스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 후원해주셔서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회주 고담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좋은 결과를 가지고 만날 수 있어 장하고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말고 사회와 나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성주사, 청소년 사생대회 및 전시회

불모산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는 10월 8일 성주사 지장전 앞 마당에서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했다.

백일장에는 성주사 현덕 스님, 김일태 경남문인협회 창원예총 고문, 양연규 前 진해 석동중 교장, 문양수 前김해 대정고 교장, 장선자 경남산가람 미술협회회장, 강주연 미술협회부회장, 경남포교사단 포교사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이원환 포교사 사회로 개회식, 현덕 스님 인사말, 심사위원 소개,



심사위원장 인사 등이 진행됐다.

현덕 스님은 "청소년들의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을 글과 그림으로서 멋지게 표현하길 바란다"며 "성주사 곳곳의 문화유산을 좋은 글로 나타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일태 심사위원장은 심사소감에서 "성주사에 오니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맑고 깨끗해지는 듯하다. 이런 마음으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 좋은 작품이 저절로 만들어 진다"며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수행의 과정을 선시와 선화는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성주사 곳곳에서는 전시전이 함께 펼쳐졌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템플스테이 20년의 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

10.24(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2층)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국회정각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
주관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참가신청 QR코드를 통해 10월 19일(수)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 2031-2024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QR코드

템플스테이 20주년 사진전
10.24월 ~28금
개막식 10.24(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2층)